잡학서고 지식의 기록

# 예술과 기술을 하나로 묶다, 바우하우스(Staatliches Bauhaus)

원문 주소

https://www.gklibrarykor.com/10183/

PDF 미리보기 ·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쇠 파이프를 구부려 만든 의자, 장식 없이 반듯한 탁상 조명, 동그라미와 네모로만 짠 글자처럼 오늘 우리가 '깔끔하고 현대적'이라고 느끼는 물건 가운데 상당수는 백 년 전 독일의 한 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겨우 14년 동안 문을 열었지만, 건축과 가구, 그래픽과 글꼴에 이르기까지 현대 디자인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학교가 바로 '바우하우스(Staatliches Bauhaus)'입니다. 바우하우스란 쉽게 말해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독일에 있었던 예술 학교로, 공예와 순수 예술을 하나로 묶고 대량 생산과 쓰임새를 중시한 디자인 교육으로 현대 디자인의 기초를 놓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독일어로 '집을 짓는 곳'이라는 뜻이며, 학교의 교육 방식과 그곳에서 나온 작품 경향을 함께 가리키는 말로도 쓰입니다. 본 자료에서는 바우하우스가 세워진 배경과 학교가 옮겨 다닌 역사, 독특한 교육 방식, 그리고 바우하우스가 남긴 디자인의 특징과 영향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술과 기술을 하나로 묶은 학교,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바우하우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새로운 사회에 맞는 새로운 예술을 찾던 분